

# 이라크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4. 7.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6
IV. 국제신인도	8
V. 종합의견	10



## I. 일반개황

면적	442천 km <sup>2</sup>	GDP	2,298억 달러 (2013년)
인구	36백만 명 (2013년)	1인당 GDP	6,377달러 (2013년)
정치체제	공화제(내각책임제)	통화단위	Iraqi Dinar (IQD)
대외정책	친미노선	환율(달러당)	1,166 (2013년 평균)

- 이라크는 아시아 서남부 아라비아 반도의 동북부에 위치한 국가로 한반도의 2배에 달하는 국토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시리아와 접경하고 있음.
- 국민의 99%가 이슬람교도이나 시아파(65%)와 수니파(35%)로 나뉘어 종파간 분쟁과 부족간 갈등으로 사회적 안정성이 낮음. 한편,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쿠르드족은 북부에 거주하며 자치정부를 유지하고 있음.
- 두 번의 전쟁과 경제제재 등으로 인프라가 부족하고 제조업, 서비스업 등의 발달이 저조하며, 풍부한 원유매장량을 바탕으로 한 석유산업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매우 높음.
- 과거 GCC(Gulf Cooperation Council)의 일원이었으나 쿠웨이트 침공 이후 제명되었으며, 사담 후세인 축출 이후 주변국과 관계 개선을 도모하고 있으나 이슬람 극단주의 반군(IS)의 침공 등 종파 갈등에 기인한 사회적 혼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II. 경제동향

### 1. 국내경제

#### □ 이라크 내전 및 예산안 미승인으로 경제성장 전망치 6.0%로 하향

- 수출의 80%, 재정수입의 98%를 담당하는 석유산업이 국가경제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제성장은 국제유가의 등락과 원유생산량 증감에 크게 좌우되고 있음.
- 2013년 석유 증산 등을 통해 8%대의 경제성장률을 시현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테러로 인한 정치적 불안감이 가계소비를 위축시키며 경제성장률은 5.2%에 그친 것으로 추정됨.
- 2014년 초 석유 증산, 정부지출과 가계소비 증가로 8.5%의 성장을 전망하였으나, 이슬람 극단주의 반군의 공격에 의한 석유 생산시설 투자 감소, 예산안 미승인에 의한 정부의 예산집행 지연 등으로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6.0%로 하향 조정됨.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분	2010	2011	2012	2013 <sup>a</sup>	2014 <sup>f</sup>
경제성장률	5.9	8.6	8.4	5.2	6.0
재정수지 / GDP	0.0	14.2	12.0	1.8	0.7
소비자물가상승률	2.4	5.6	6.1	1.9	3.2

자료: EIU.

#### □ 정부지출 증가에 따라 재정흑자 규모 감소 전망

- 풍부한 석유자원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세수 기반으로 재정수지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국제유가 등락과 재정수입의 98%를 차지하는 석유산업의 업황에 따라 재정흑자 규모가 크게 변동됨.
- 2011~12년 원유 증산과 고유가로 대규모 재정흑자를 기록하였으나, 2013년 유가하락과 테러로 인한 원유 생산량 감소로 정부 수입이 전년대비 15% 감소하면서 GDP 대비 재정흑자규모는 2012년 12.0%에서 1.8%로 급감함.

- 2014년에는 교육, 보건 공공서비스(건강보험 개혁 포함)에 대한 재정지출의 확대로 GDP 대비 재정수지 흑자 비율이 0.7%로 감소할 전망이다. 그러나 내전과 정부 예산안 승인 지연으로 정부의 예산 집행이 미루어지고 있어 재정수지 흑자규모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 식료품 수입가격 안정으로 3.2%의 안정적인 물가상승률 전망

- 석유산업 이외의 산업 부문 발달이 부진하여 대부분의 생필품 및 식료품을 수입에 의존하며, 비공식적으로 고정환율제를 유지하고 있어 환율보다 해외시장 가격에 의해 물가상승률이 크게 변동함.
- 2013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식료품 국제가격 안정과 전년도 6.2%의 높은 물가상승의 기저효과로 1.9%로 크게 하락하였음. 2014년에도 식료품 가격 안정의 지속으로 3.2%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되나, 내전으로 인한 식료품공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 물가상승률은 상향될 것으로 예상됨.

## 2. 경제 구조 및 정책

### 가. 구조적 취약성

#### □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비석유산업 발달이 미흡한 경제구조

- 석유산업이 수출의 80%, 재정수입의 98%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석유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아 국제유가 등락과 원유 생산량 증감이 국가경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또한, 1990년 UN 경제제재와 2003년 이라크 전쟁으로 인한 기술인력 부족 및 기반시설 파괴로 현재 석유산업 외의 산업은 크게 위축된 상황임.

#### □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개혁 필요

- 국제금융공사가 발표한 Doing Business 2014에 따르면, 이라크의 기업 경영여건은 189개국 중 151위에 그쳤음. 세부항목을 보면 석유개발을 위한 건축허가 항목(20위)만이 양호한 수준이며, 신용취득(180위), 역외 무역(179위), 지급불능 해결(189위) 등은 최하위권에 그치고 있어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개혁이 시급함.

나. 성장 잠재력

□ 원유·천연가스 매장량이 풍부한 자원 부국

- 이라크는 2013년 확인매장량 기준 1,500억 배럴의 원유(세계 점유율 8.9%; 세계 5위, 중동 3위)와 3.6조 m<sup>3</sup>의 천연가스(세계 점유율 1.9%; 세계 12위, 중동 5위)를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 자원 부국임.
- 그러나 기반시설 부족과 테러 공격 등 치안 불안 문제로 인해 2013년 일일 원유 생산량은 300만 배럴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에 그쳤음. 최근 우리나라를 포함한 외국자본의 인프라 시설 투자가 이어지며 향후 생산량이 증가할 전망임.
- 이외에 인산염, 황 등의 광물자원,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의 풍부한 수자원도 보유하고 있음.

□ 경제 재건을 위한 주택건설과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 추진으로 건설 경기 활성화 예상

- 전후 경제 재건을 위해 신도시 건설, 발전설비 확충, 철도 개선, 공항 건설 등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또한, 전후 2.9%의 인구증가율과 함께 주택공급 부족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정부는 2016년까지 25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목표를 수립하였음.
- 따라서, 주택공급과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건설경기 활성화로 건설업이 크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다. 정책성과

□ 부족간 갈등으로 인한 예산안 미승인으로 확장적 재정정책 실시 어려움

- 정부는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하여 2013년 정부지출이 전년 대비 7.4% 증가하였으며, 2014년은 전년보다 10%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쿠르드자치정부의 예산안 미승인으로 일부 분야에서 예산집행이 미루어지며 정책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국가투자위원회(NIC)를 통해 외국인투자 적극 유치

- 부족한 기술력과 재정을 보완하기 위해 NIC를 통해 적극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있음. NIC 운영의 성과로 매년 꾸준한 FDI 유입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2012년 FDI 유입은 25억 달러로 전년대비 22% 증가하였음.
- \* FDI 유입규모(억 달러) : 14억('10) → 21('11) → 25('12)

3. 대외거래

□ 국제유가 하락, 자본재 수입 증가, 내전으로 경상수지 흑자폭 감소

- 수출의 80%를 차지하는 원유수출로 매년 상품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경상수지 흑자로 이어지고 있음. 그러나, 국제유가 하락과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로 인한 자본재 수입 증가 등의 요인으로 2013년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전년대비 33% 감소하였음.
- 2014년에도 전년과 동일한 기조가 이어짐과 동시에 경제성장에 따른 수입품 수요 증가, 내전으로 인한 북부 지역의 원유 수출 차질 등으로 경상수지 흑자폭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이라크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14년 6월 원유 수출량은 일일 250만 배럴로 전년동기 대비 16.7%가량 감소하였음.

<표 3>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sup>a</sup>	2014 <sup>b</sup>
경 상 수 지	6,488	26,126	29,541	19,759	13,316
경 상 수 지 / G D P	4.8	14.5	14.3	8.6	5.1
상 품 수 지	14,432	39,051	44,052	33,088	28,373
수 출	51,760	79,684	94,207	89,763	95,250
수 입	37,328	40,633	50,155	56,675	66,877
외 환 보 유 액	50,377	60,744	68,733	76,112	-
총 외 채 잔 액	60,975	61,043	60,200	59,494	58,192
총 외 채 잔 액 / G D P	45.0	33.8	29.1	25.9	22.4
D S R	1.9	2.7	3.4	4.1	4.6

자료: IMF, EIU.

## □ 외국인투자 유입 증가, 경상수지 흑자 유지로 외환보유액 증가 추세

- 외국인투자 유입 증가와 경상수지 흑자 유지로 외환보유액은 꾸준한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3년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761억 달러 규모로 파악됨.

\* 외환보유액 규모(억 달러) : 607('11) → 687('12) → 761('13)

## □ 양호한 외채상환능력 유지

- 대규모 프로젝트 개발에 대한 막대한 자금 소요에도 불구하고 원유 수출 호조로 재정수지 흑자 기조가 유지됨에 따라 총외채잔액은 감소 추세임. GDP 대비 외채규모는 2013년 25.9%로 전년보다 3.2% 포인트 하락하였음.
- D.S.R은 2013년 기준 4.1%로 전년대비 다소 상승하였으나, 양호한 수준임.

## III. 정치·사회동향

### 1. 정치안정

#### □ 총선 이후 내각 구성까지 종족간, 종파간 갈등으로 국정 공백 예상

- 2014년 4월말 실시된 총선에서 현 집권당인 시아파의 범치연합이 328석 중 92석을 차지하였음. 연정 구성을 위해 정당간 연합이 구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연합 완료 후 각 정당 출신의 인물을 중심으로 한 내각을 발표할 예정임.
- 그러나 지난 총선시 내각 구성까지 9개월이 소요된 점과 최근 종족간, 종파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금번 내각 구성에도 많은 시일이 소요되며 국정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이라크 정당은 크게 시아파(집권당), 수니파, 쿠르드족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으며, 내각 구성을 국회로부터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세 분류의 정당을 포함한 연합이 필요함.

##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 이슬람 과격단체의 이라크 3개주 장악 및 이라크의 3분열 가능성 대두

- 지난 1월 이라크 안바르주(Anbar)의 팔루자를 장악한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조직 ISIL\*은 6월 10일 이라크 제2의 도시 모술을 장악하였으며, 현재까지 이라크 3개주(전 국토의 20%)를 사실상 장악한 상태임.

\* ISIL : 이라크-레반트 이슬람국가(Islamic State of Iraq and the Levant)

- ISIL은 시리아·요르단과의 국경지역까지 세력을 확대하고 바그다드를 향해 진격 중이나, 정부군의 반격 강화로 대치 중임.
- ISIL은 6월 29일 명칭을 IS(이슬람국가)로 바꾸고, 칼리프(이슬람의 정치·종교 지도자)에 의해 통치되는 이슬람 국가의 수립을 선포하였음. 현 상황이 고착화될 경우 이라크가 중부의 수니파, 바그다드 및 남부의 시아파, 북부의 쿠르드자치정부(KRG)로 분열될 가능성이 대두됨.
- 자치지역 내의 유전 개발, 원유 수출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갈등을 빚어온 KRG는 혼란을 틈타 유전지대인 Kirkuk 지역을 중심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으며, 오랜 기간 유지해 온 독립에 대한 열망에 대해 결실을 맺고자 함.

### 3. 국제관계

#### □ 내전과 관련하여 종파별로 상이한 입장

- 시아파 정권인 이란은 이라크 정부군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반면, 수니파 정부인 사우디아라비아 등 왕정 국가들은 이란의 개입을 반대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이란과 미국의 관계 개선에 난색을 표함.
- 사우디아라비아 등 왕정 국가들은 시아파(이란)의 견제를 위해 ISIL을 포함한 시리아 반군을 지원하였으나, ISIL이 칼리프제 이슬람 국가 선포로 왕정 국가들을 위협함에 따라, ISIL의 세력 확대와 이란의 개입을 모두 반대하고 있음.

**□ 미국은 소극적 자세로 일관, 이라크 사태에 간접적 개입**

- 미국은 이란의 핵무기 소지와 관련하여 경제 제재를 통해 이란을 견제해 옴. 그러나, ISIL의 이라크 침입으로 중동 전체에 혼란이 야기되자 이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지상군의 파병을 배제하는 소극적 자세로 이라크 내전에 간접개입하고 있음.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대규모 외채 탕감 경험**

- 이라크 전쟁 이후 대외부채 규모는 파리 클럽의 양허성 부채 425억 달러, 비파리클럽(걸프 지역 국가) 양허성 부채 674억 달러, 상업기관 부채 200억 달러 등 총 1,300억 달러로 추정됨.
- 파리클럽 372억 달러의 채무 탕감을 시작으로 러시아 120억 달러(2008년), UAE 70억 달러(2008년), 중국 68억 달러(2010년)의 채무를 탕감하는데 동의하였음.

**2. 국제시장평가**

**□ 주요 기관별 신용도 평가순의**

- OECD는 1996년 이래 지금까지 이라크에 대한 국가신용등급을 7등급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2014년 1월 평가회의에서도 7등급을 부여하였음.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수출입은행	E (2013. 5.)	E (2006. 9.)
OECD	7등급 (2014. 1.)	7등급 (2013. 1.)

※ S&P, Fitch, Moody's는 이라크에 국가신용등급을 부여하지 않고 있음.

**□ 주요 ECA 인수태도**

- 미국 EXIM: 단기/중기 인수 가능하나,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음.
- 영국 ECGD: 전액 인수가가능하나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음.
- 독일 Hermes: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음.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 수립: 1989년 7월 9일 (북한과는 '68. 1. 30. 수교 후 '80. 10. 10 단교)**

**□ 주요 협정: 무역경제기술과학협력협정(1983), 항공운수협정(1985), 문화협정(1985)**

**□ 교역규모**

- 2013년 우리나라와의 교역규모는 112억 달러로, 우리나라의 수출은 자동차, 정전기기, 섬유 및 화학기계 등을 중심으로 20억 달러, 수입은 원유, 석유제품 중심으로 92억 달러를 기록함.

**<표 4>**

**한·이라크 교역 규모**

단위: 백만 달러

	2012	2013	2014.1-5	주요품목
수 출	1,866	1,973	775	자동차, 정전기기, 섬유 및 화학기계
수 입	10,227	9,260	2,924	원유, 석유제품

자료: 한국무역협회.

**□ 양국간 해외직접투자 현황**

- 우리나라의 대 이라크 주요 투자는 광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투자실적은 2014년 3월말(누계기준) 신규 법인수 총 10건, 투자금액 3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음.
- 이라크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내역은 총 190건, 134만 달러임.

## V. 종합 의견

- UN 경제제재와 이라크전에 따른 기술인력 부족 및 기반시설 파괴로 석유 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은 크게 위축된 상태임. 석유 증산, 정부지출 증가로 2013년 5.2%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2014년에는 내전과 예산안 미승인으로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낮은 6.0%로 전망됨.
- 확장적 경제정책에 따른 대규모 프로젝트 진행 및 자본재 수입 증가, 내전에 따른 원유 생산량 감소로 재정수지와 경상수지 흑자 규모 모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조직인 ISIL이 3개주를 장악하고 이슬람국가의 수립을 선포함에 따라, 현 상황의 고착화 및 이라크의 3분열 가능성이 대두됨. 이라크의 각 종파는 내전에 대해 상이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미국은 지상군의 파병을 제외한 소극적인 자세로 이라크 내전에 개입하고 있음.
- 원활한 원유 생산을 통한 재정수지와 경상수지 흑자로 대규모 차입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2013년 기준 GDP 대비 외채규모는 전년보다 3.2% 포인트 하락한 25.9%, D.S.R.은 4.1%으로 양호한 외채상환능력을 보임.

조사역 임민교 (☎02-3779-5727)  
E-mail: [yng@koreaexim.go.kr](mailto:yng@koreaexim.go.kr)